



보도자료

(2018. 03. 13.)

작성과	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
담당자	과장 : 김숙희 담당 : 김현국
전화번호	760 - 3681
사진	있음

서귀포시 중앙도서관, ‘시가 흐르는 담벼락’ 운영

-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(소장 김숙희) 중앙도서관에서는 서귀포시의 여러 담벼락에 시를 게첨해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시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‘시(詩)가 흐르는 담벼락’ 을 이달부터 시행한다.
- ‘시(詩)가 흐르는 담벼락’ 은 서귀포시의 곳곳에 계절에 어울리는 시를 현수막에 게첨해 서귀포 시민들이 평상시에도 가까이에서 시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기획되었다. 이를 통해 시민들은 한 편의 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관심이 시인에 대한 관심으로, 더 나아가 독서로 이어지는 계기를 만들어 독서와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고자 한다.
- ‘시(詩)가 흐르는 담벼락’ 은 3월부터 12월까지 ‘봄의 시’ 를 시작으로 봄·여름·가을·겨울 등 총4회에 걸쳐 건물 내외부에 현수막을 활용해 시를 게첨한다. 시 게첨 장소는 중앙도서관, 삼매봉도서관, 기적의도서관, 서귀포시청(1청사) 4곳이며, 각 분기별로 계절에 어울리는 시를 선정하여 현수막을 게첨한다.
- 시 선정은 서귀포시 문인협회와 중앙도서관 사서의 협력으로 추천시각 21편씩, 총 42편의 시를 선정하여 계절별로 분류하여 장소에 어울리는 시를 골라 선정하였다. ‘봄의 시’ 는 김종해 작가의 ‘그대 앞에 봄이 있다’ 와 나태주 작가의 ‘소망’ 이다.
- ‘시(詩)가 흐르는 담벼락’ 을 통해 서귀포 시민들이 바쁜 일상속에서도 가까이에서 시를 마주함으로써 시에 관심을 가져 문학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관련사진



*2018년 중앙도서관 '시가 흐르는 담벼락- 봄의 시' 사진